등급정보 (계란)

▷ 21개 업체에서 생산한 3천1백64만1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은 84.0%, 1등급 15.7%, 2등급 0.4%, 3등급은 0%를 차지하였고, 전월대비 4백96만4천개(18.6%) 증가, 전년동기(20개 업체) 7백30만9천개(30%) 증가, 금월누계는 2억4천673만3천개로 전년동기 누계 대비 4천2백3만1천개(20.5%) 증가

계란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 천개, %)

중량 규격	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08년 1~8월	246,733	210,993	85.5	32,843	13.3	1,231	0.5	1,666	0.7
'08년 8월	26,677	22,146	83.0	3,971	14.9	225	0.8	336	1.3
'08년 9월	**31,641**	**26,574**	**84.0**	**4,952**	**15.7**	**114**	**0.4**	**-**	**-**
왕란	225	208	92.3	17	7.7	-	-	-	-
특란	23,936	20,074	83.9	3,817	15.9	44	0.2	-	-
대란	7,423	6,269	84.5	1,088	14.7	65	0.9	-	-
중란	57	22	38.9	29	51.6	5	9.5	-	-
소란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산란실용계 감축 본격

산란계 사육수수 감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는 '산란실용계 감축방안 협의회'를 갖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채란분과위는 이에 따라 산란계 농가의 자율적인 입식자제를 도모함으로써 산란계 사육수수를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공감, 세부추진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산란계 병아리 및 중추 입식 전면 중단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국 채란인대회 결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산란계 지침서' 증보판 발간

'산란계 사양관리 지침서' 개정, 증보판이 발간됐다. 이 지침서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발간돼 양계농가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린 것으로 사육단계 HACCP 등 내용을 대폭 보완해 발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한양계협회에서 이번에 발간한 개정판은 사양관리에서부터 산란계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수록했다고 소개했다. 지침서는 2만원에 양계협회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두뇌건강에 좋은 계란

한때 계란이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아 혈관질환에 문제가 된다고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어 계란소비가 급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많은 연구 끝에 계란 노른자 속의 레시틴이란 성분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여 계란을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콜린이라는 성분은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줘서 기억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치매를 예방한다고 밝혀져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다.